십자가의 삼박자 축복<III>, 액션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의 삼박자 축복 세 번째, 액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나를 오버랩 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 기독교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구원이 주어지는데, 구원은 우리 몸이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에 참여하게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제를 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인 하늘나라의 교제 속에 지금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의 사랑을 받듯이 우리가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위치에서 함께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그랬으니까… 함께 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교제에 참석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참석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특징은 이 세상에서 마음이 빠져 나와서 하늘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저 관찰할 수 있을 뿐이에요.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활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집을 얻어 살고, 하는 이 모든 내 삶의 여정을,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봅니다. 내가 먹는 걸 내가 보고, 내가 입는 걸 내가 봅니다.

이렇게 하늘에 참여하고 세상을 관찰하는 자가 준비가 된 것이에요. 어떤 준비가 된 것이냐? 여러분, 영화 찍는 장면을 간간히 보시지요? 영화 찍는 장면을 보면 감독이 앉아 있고 배우들이 앞에서 연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가 들이대고, 중간에 조연출이 슬레이트라고도 하고 클립보드라고도 하는 것을 벌렸다가 딱 하고 맞추면서 레디 액션 하면 연기를 시작하잖아요? 그 배우들의 연기를 액션이라고 해요, 액션.

액션이 뭐냐 하면 의도가 들어간 배우들의 연기이거나 또 아니면 어떤 목적이나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마찬가지로 의도가 들어간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이나 조치, 이게 액션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참여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오버랩 시키면서 내가 죽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마음이 하늘나라에 참석하게 될 때, 하늘나라 참석하며 세상은 구경하게 될 때, 레디(ready)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된 겁니다.

이렇게 레디(ready)가 되면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빠져나갈 때 이 세상의 공간 속, 내 몸 속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액션(action)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레디 "액션(ready action)!"이에요.

하늘에 참여하며 세상을 관찰하는 준비가 되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액션이 시작됩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삼박자 축복 중에 마지막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액션, 레디 액션!
ready가 뭐라구요? 하늘에 참여하는 자, 세상을 관찰하는 자 내 삶을 관찰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액션이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오버랩 시켰더니, 내 마음은 하늘에 참여하고 내가 내 삶을 관찰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액션을 시작하시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반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분을 믿는다는 게 십자가에서 오버랩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 세상에 참여해서 난리치고 염려하며 살던 상태에서 내 마음이 하늘에 참여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있던 이 세상 자리에 그리스도가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오해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내가 소원하는 걸 비전으로 갖고,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갑니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액션을 취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봐요. 밥을 먹고, 밥 먹은 지 5분도 안돼서 또 빵을 달라고 하고, 빵 먹은 지 5분도 안돼서 또 떡을 달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먹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이 녀석이 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유적인 의미가 있습니

다만 내 안에 거지가 들어와서 액션을 취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계속 먹고 먹고 먹고 먹습니다. 이 비유를 영역을 확대해서 적용해 봐요. 저녁 먹을 때도 책을 보고 화장실 가서도 책을 보고 걸을 때도 책을 보고 앉아서도 책을 보고 계속 책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녀석이 속에 박사님이 들어앉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나 깨나 돈, 돈, 돈, 밥 먹을 때도 돈, 사람을 만날 때도 돈, 애인을 사귈 때도 돈, 돈 돈 돈, 하면 그 속에 수전노가 들어앉았거나 돈 귀신이 들어앉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실 때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부자 되는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형통할 것을 이루시겠습니까?
무엇을 이루시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건강해야 됩니다, 부자 되어야 됩니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승진해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걸 원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부자 되는 걸 원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면서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시면서 무슨 이 세상의 형통을 원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서 일류대학 들어가기를 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아가실 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 했던 것은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당신의 형통도 아니고 당신의 성공도 아니고 당신의 명예도 아니고 당신의 건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만을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께서 "액션!" 하셔서 액션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가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하나부터 열까지 재미 하나도 없게 흥미 하나도 없게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공생애 때에도 하늘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도 하늘 아버지의 뜻만 이루십니다. 그러면 공생애 때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다를까요?

공생애 때 하늘 아버지의 뜻은 그 결과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것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왕이라도 그 은혜를 벗어나면 죽는 것이고 정말 거지같은 삶을 살게 되는 분이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고… 모두에게 공통되게 필요한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액션을 취하실 때, 그 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취급을 안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모습을 내 행동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보이

는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으악! 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일차적인 관심이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분하시겠어요?
두 번째 세상 관찰과 이 액션, 뭐가 다른가 하면 관찰은 내가 포함되어 있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몸이 있잖아요, 몸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은 몸을 살려주고 계신다는 뜻은, 몸은 움직이기 위해 있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이지요.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움직이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입기 위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 신상에 관해서 뭘 향상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움직이는데,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나만을 향한.

공생애는 공통된 것이었다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는 나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과 연합하여 죽게 되면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교수라는 신분에 맞게 나만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장사하는 나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어머니라면 나한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남편에게 적용되는 뜻과 어머니인 나에게 적용되는 뜻이 같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나한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내주하시고 액션을 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교제를 하실 때, 성령을 통해 교제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액션을 취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의 액션은 승천하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후의 액션은 만인공통이 아니라 나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만 적용되는 하늘 아버지가 갖고 계신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먼저 그 뜻은 내가 먹고 사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루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의 진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주님께서 액션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룰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 베드로가 사람들에 의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고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 자빠진 거지요.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숭배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지요? '사람들아, 왜 마치 우리의 경건이 이런 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행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살게 되는 믿음이에요.

오늘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그러므로 앉은뱅이를 일으킨 것이 전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액션"하신 거예요. 왜? 베드로가 레디가 되었으니까… 준비가 되었으니까…

마음은 하늘에 참여하고 있고 자기 삶에 대해서는 관찰하는 자의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액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실 때, 그리스도의 액션이 시작될 때에 당연히 굉장한 일이 일어나지,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고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안의 그리스도께서 액션을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뭐는 못하세요?

베드로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지요. 하루에 삼천 명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제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설교를 하실 경우에 만 명도 회개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무슨 기적이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무슨 기적이든지 일어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일으킬 필요가 없을 수는 있잖아요. 나는. 내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수의사다, 그러면 그 수의사에게 갑자기 뛰쳐나가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일으키시는 액션을 그리스도가 수의사인 나를 통해서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필요를 누가 결정해요? 주님이 결정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능력을 원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모두가 다 기적을 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 직장인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내가 지금 대통령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엄만데, 내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내가 자동차 고치는 정비공인데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신다. 이럴 때 그리스도께서 액션을 취하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직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직장에 나가셔요. 그리스도가 자동차를 고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상적으로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동이지만 그리스도의 액션이 내가 직장에 나갈 때와 다른 것은, 내가 직장에 나갈 때는 나가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압니다. 내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건 내 일이 아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늘에 참여하는 일이다. 나는 위엣 것을 찾는 거예요. 직장 나가서 돈 버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직장에 내보내십니다. 다니던 직장이니까, 그런데 직장에 나가는 그 행위가 완전히 질이 바뀌어 지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을 키웁니다. 그 이전에는 그 아들을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키우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를 쓰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이제 아들을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제 안에 참여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려고 애를 씁니다. 도대체 외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데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눈곱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랑을 가만 있는다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유해 들어가야 되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크기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건 팔 때, 예를 들어 LCD TV 시장의 점유율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아들까지 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나에 대한 사랑의 시장의 넓이가 어느 정도이겠어요?
그 사랑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이 어느 정도 실감하며 점유하고 있습니까? 시장점유율처럼… 없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점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이제 세상의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세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세상에 불참하면서 내 마음에 생긴 염려와 불만족을 하늘로 채우기 위하여 하늘의 아버지 사랑을 점유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해 주세요, 많이 갖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거지요.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식을 만집니다. 자식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냥 밥 해 줍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밥을 해 주는 것과 내가 자식을 잘 키우려고 밥을 해 주는 것,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액션을 취하실 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게 되는 일을 하는 것뿐이죠.

다윗이 사무엘 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게 됩니다. 기름부음을 받을 때 표현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후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양치기를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했으니까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려나 하고 봤더니 그냥 양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한 가지 보태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사울 왕이 악령에 들려서 머리가 아프고 번민할 때에, 가서 수금을 치면 악령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이 함께 한다는 증거지요.
사울 왕이 아플 때 수금을 타 주는 기록을 해 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있다는 것을 증거 해 주는 겁니다. 확증해 주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있어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양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양치기를 하면서 다윗이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일이 뭐냐 하면 돌팔매질입니다. 돌팔매질을 그냥 한 거에요. 신에 감동받아가지고… 아니,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받아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영적지도자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무엘의 지시를 따라 기름부음을 받아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한 자가 기껏 들판에서 양치기 하고 있겠습니까? 그럴 때, 지구를 삼킬 만한 큰 비전을 품고 그 비전에 맞추어진 행보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만 한걸음이라도 그 비전에 맞춰진 행보를 걸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양치기로 계속 돌팔매질 하고 있고, 아버지가 부릅니다. "얘야, 이리와라, 네 형들 셋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형들에게 밥을 좀 가져다주어라." 그래서 전쟁터에 도시락 싸 가지고 왔어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가.

근데 와 보니까 골리앗이 3미터가 다 되어가는 거인이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사울 왕 이하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다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액션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ready, 어떤 레디? 여호와의 신이 감동합니다. 신이 감동한다는 것은 뭐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사울 왕 이하 모든 이스라엘 군인보다도 더 깊게 마음속에서 깨닫고 실감하고 있었다는 것뿐이에요. 하늘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죠. 이 세상일에 대해서는 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뒤에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돌팔매질 하면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쟁터에 와서 딱 보았는데, 하늘에 참여한 자가 아닙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단어를 모르는 이스라엘 군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호와가 만군의 주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서 있을 수 있으려면 여호와가 만군의 주이심에 내 마음이 참여해야 돼요. 내 마음에 실감 되도록 참여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다윗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떡 입게 돼요. 안 맞아요. 일상적이지 않아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 된 뒤에도 여전히 일상적으로 양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돌팔매질을 했어요.
그 일상적인 돌팔매질을 그냥 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양을 물고 가는 사자 대신에 골리앗이 맞아 죽은 거예요. 다윗이 한 것은 양칠 때 하던 돌팔매질을 전쟁터에서 똑같이 한 것뿐입니다. 일상적인 것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일상적인 행동에 골리앗이 맞아 죽었어요. 이건 비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농구를 하잖아요? 농구공이 크고 농구골대가 조그맣습니다. 던져서 쏙 쏙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농구로 비유하면 다윗은 아무데나 공을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농구골대를 들고 움직이시면서 다윗이 공을 어디에 던지든지 간에 골

인이 되게끔 갖다 들이 대시는 거예요. 다윗이 정확하게 골대를 향해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보면, 다윗은 그냥 평소 때처럼 돌팔매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자 대신에 골리앗의 목덜미를 잡아다가 다윗이 던진 돌이 저쪽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마~악 쫓아가서 다윗이 던진 돌 앞에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들이댄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새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골리앗을 무찌르자는 목표와 비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비전에 맞는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는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방패와 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골리앗이라는 목표는 하나님이 장중에 붙들고 계세요. 농구골대를 붙들고 있듯이…

아이 키우던 엄마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마음이 하늘에 참여하고 아이의 삶을 관찰할 준비가 되면, ready 가 되면 그리스도의 액션이 일어날 때 아이를 위해 밥 지어주면 됩니다. 아이를 위해 빨래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지 못한 채로 내가 아이를 키우려고 할 때에 밥 지어주는 것과 옷 입혀주는 것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액션으로 나타나는 옷 입혀줌과 밥 지어줌은 그 아이 속의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평범한 일을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 이상의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액션은 언제나 평범하게 일상적인 일들을 채택해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내가 말이 자꾸 혼동이 되잖아요? 내가 하는 거냐,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냐? 어떻게 아느냐?
“레디~ 액션!”
내가 ready가 됐는가, 내 마음이 하늘에 참여하고 있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관찰하면서 마음에 만족과 감사와 평강과 기쁨은 하늘에서 이미 다 얻고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을 관찰하면서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해 나가시나를 보는 ready가 되면 아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액션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ready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즉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레디가 안 된 거지요. 그리스도의 액션이 나타나는 레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돈 때문에 염려가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염려를 돈을 구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염려를 하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에 사랑을 더 많이 느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건강을 회복해서 염려를 극복하려 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느껴서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안 좋은 상태를 뛰어넘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끔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병도 낫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가는 그대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레디~ 액션, 내가 레디가 돼서 그리스도가 액션해서 사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일상적인 일을 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마치죠.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보면서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빼앗아 가는 하나님만 보았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통해 얻으려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재산 빼앗아 갔지요, 남편 빼앗아 갔지요, 아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거지가 돼서 귀국하게 합니다. 따라옵니다. 따라온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참여한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하늘에 참여하듯이…

모압 땅 이방인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선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레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레디가 된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땅에 떨어져 버려진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삭을 줍는 일이 액션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너무 사소하고 하찮은 일,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삭을 줍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느 한 이삭의 자리 대신에 보아스라는 남자를 끼워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남편을 줍게 됩니다. 이 남편이 다윗의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뭐 대단한 일을 하거나 계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ready가 되면 하늘에 참여하게 되고 세상은 관찰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실 때,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대단한 일을 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평범한 일, 오히려 그동안 내가 꿈을 갖고 내가 인생의 어떤 비전을 갖고 이루려고 했을 때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시시한 일들을 그리스도는 채택해서 당신의 액션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직업이 없는 남자가 있습니까? 집안 청소부터 하세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실 것이에요. 내가 지금 남자인데 청소하고 있겠어? 이런 의식 자체가 아직 하늘에 참여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준비가 돼서 액션을 취하시게 될 때는 그동안 내가 너무나 하찮고 시시하고 내 인생의 성공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여겼던 그런 사소한 일을 채택해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돌팔매질 같은 것을 하시게 될 것이고, 이삭줍기를 하시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삭줍기에 다윗의 증조할아버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돌팔매질에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하늘에 참여하고 있으면 돼요. 단지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뭐를? 그리스도께서 액션을 취하실 때 너무나 사소한 것을 채택해서 액션으로 취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레디~ , '세상은 관찰하자 하늘에 참여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만족은 하늘의 것으로 누리자', 그렇게 레디가 되면, 내 안의 그리스도가 액션을 취하시게 될 때 아무리 세상 사람들 눈에 시시해 보이는 일이라도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그 액션에 함께 동행 하며 감사하고 찬양만 하세요. 어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사소한 그리스도의 액션을 통하여, -왜 여러분이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몸을 통해 일어나니까- 어떤 대단한 일이 이루어질지 누가 압니까?

POA! 영어의 약자로 POA, 천국 참여 Participation, 세상 관찰 Observation, 그리고 그리스도의 액션 Action.
십자가의 삼박자 축복 POA, 완전히 포만한 기쁨과 만족과 축복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포아, 포만하다, 내가, 완전히 만족한다. 십자가를 통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일 간에 걸쳐 십자가의 삼박자 축복을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여와 관찰과 액션의 삼박자 축복이 매일같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음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이 한 가지 믿음의 사건을 통하여 세 박자의 축복이 날마다 반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